

1. 어느 한학자(漢學者)가 난생 처음 성경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그 첫 장을 넘겼을 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늘 궁금하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한 것이지요. “주물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2. 경제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락 곡선이 안장점에 다다랐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진리는 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서를 대할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귀가 번쩍 트이겠지요? 또, 다 있는데 자기에게만 없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4. 항간에, 그런 여인은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려 보라 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사무엘서가 뛰어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을 얻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5.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3장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과연 오늘날 이 이야기에 귀기울일 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는지 궁금해 할 자가 있겠는가?
6. 3장의 처음을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삼상 3:1).”** 성경의 어느 장이 이런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7. 그래서, 그 “주제”에 관심을 두고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금방, 그 주제란 바로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에 흔히 보이지 않던 비전, “이상!”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 “과연 이 “이상”에 관심을 가질 자가 누가 있겠는가?”
8. 사무엘은 젖을 떼자 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한나가 가끔 작은 겹옷을 주러 다녀가곤 했지요. 라마다임소빔에서 실로까지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9.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습을, 사무엘서가 기록하기를, 3: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때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상이 회귀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늙어서 그 능력이 쇠퇴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야만 하는 시대였지요. 그러나 여호와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1. 이러한 것은, 새벽 동이 틀 때의 긴장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새로운 날이 되었을 때, 정작 무엇이 버려지고 또 무엇이 남을 지를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딤후 4:6)”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말씀은 메노라의 등불처럼 항상 밝은 것입니다.
12.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절”이라는 것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등불의 비침을 받는 자들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시”는, 시간을 따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담지자인 인간은, 마음도 쇠퇴하고, 육신도 늙어가고, 생각도 무뎠진다는 말입니다.
13. 한 장 뒤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눈이 어두워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 엘리지요. 그러나, 그 생각과 행위마저 어두워진 자들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4. 2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어두워진 이유를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타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상이 회귀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지요.
15. 아담 이래로 하나님은 줄곧 인간의 죽음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홉니와 비느하스가 부패했거나 게을렀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란 그의 이름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어머니 한나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런 이름을

지는 이유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7. 여호와께 아들을 구한 것은 한나였지요. 그런데 “사무엘”이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구한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했다는 것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구한 것은 한나인데, 들은 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18.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이름을 지으려면, “샤알티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곧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주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앉힌 것입니다.
19.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의 본질과 실존을 놓고, 그건 내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지만, 정작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느 한 실체와 그 실체가 말하고 있는 역사와 그 배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주어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20.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은 자는, 밤중에 어린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어두운 눈의 엘리였지요.
21.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는 꿈이나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무엘의 시대를 열 때에는, 그 방편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에서 “부르심”으로! 보는 것에서 들리는 것으로!
22.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한나이지만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시사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야 하고, 무엇을 궁금해 해야 하고, 또 무엇이 주제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23.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제한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무한이 먼저 유한으로 축소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 소리를 들은 자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아차린 사람은 늙은 엘리였습니다. 이상이 흔치 않아서 자기 집에 가서 은퇴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듣게 하시는 자, 깨닫게 하시는 자, 곧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주체이십니다.

25.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이를 못낳으면 절에 올라가라는 충고도 아니고, 또 소명을 받았으면 제대로 응답하라는 교훈도 아니지요.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종교를 이용하여 부정축재하지 말라는 경고도 아닙니다.

26. 사무엘상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 곧 “이상”입니다. 어떤 이상입니까? 내가 받아 들은 음성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서의 음성! 내가 못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기도하여 구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아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 주제인 것입니다.

27.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다고 고백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